

철학사입문코스Ⅳ

제9강 버클리 와 흄, 프랑스계몽사상

제9강 1교시

◆ 버클리의 철학

18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조지 버클리와 흄은 로크의 사유를 이어받아서 경험주의 철학을 전개했다.

▶ 참고자료

버클리 [Berkeley, George, 1685.3.12~1753.1.14]



출생지 : 아일랜드 킬케니

학력 : 트리니티대학

약력 : 1707년 트리니티대학교의 연구원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버뮤다섬에 이상적인 대학건설을 계획, 실패

1733년 아일랜드 클로인의 주교로 임명되어 지방 교화에 주력

저서 : 《사이리스(1744)》 《인지원리론(人知原理論)》(1710)

화제 : 영국의 고전경험론을 대표하는 철학자이다. 신흥 자연과학의 유물론과 동시대의 무신론·이신론·자유사상에 대하여 그리스도교를 변호하는 호교론(護敎論)에 있다고 주장했다.

버클리는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하는 것들은 실재하는 것들이라는 **현상론phenomenalism**을 펼쳤다. 현상이 곧 실재라는 것인데 좀 약하게 말해서 현상이 실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현상 속에 살아가고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sse = percipi

Being = Perceived

버클리는 데카르트의 물질적 실체 개념이나 로크의 ‘something I know not what’은 거부했다.

⇒ 데카르트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지각하는 맛, 냄새, 색깔 등을 제2성질로 보았다. 즉 어떤 물체의 실체는 공간적 외연뿐이라고 보았다. **로크도 경험주의의 입장을 취하지만 경험만으로는 사물의 실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어떤 사물을 오로지 감각으로만 확인한 것이 질이라고 한다면 질 이상의 물이 있다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적인 그림들을 보면 그림의 본질은 지각된 것들을 넘어서 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아이디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즉 현실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이데아를 그린 것이다. 하지만 인상파에 이르면 어떤 사물의 이데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현상을 그린다.

버클리의 철학에서는 사물의 깊이가 이해되지 않는다. 즉 사물의 표면만을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사물의 한 겹만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직관과는 들어맞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잔느의 고민이기도 하다.

▲극단적인 현상론을 펼칠 경우 생기는 문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모두 지각된 것이라면 사람마다 지각하는 그 세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objectivity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후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intersubjectivity, 즉 상호주관성/상호주체성을 설명할 수 없다.

⇒ 유아론solipsism

⇒ 버클리는 상호주관성의 문제를 신을 끌어들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전통사고가 그어온 현상과 실재 사이의 금을 지워버리고 완전히 현상론으로 간 버클리의 태도는 18세기에 나타난 전형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버클리는 색과 본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했다. 버클리는 데카르트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서 색이 리얼리티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버클리는 추상관념들,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원자들이나 영혼들에 대해 비판한다. 라이프니츠와 뉴턴에게서 개발된 것이 무한소미분인데 버클리는 이러한 무한의 관념도 비판한다.

버클리는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은 사물들의 표면이 아니라 마음 속에 존재하는 관념들이라고 보았다. 버클리의 주장은 사물이 일단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것의 표면만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물의 표면 자체도 마음이라는 것이다.

⇒ 따라서 버클리의 주장은 **극단적인 유심론**이다.

어떤 빛깔이나 모양이 있다면 그것은 시각이나 촉각에 의하여 지각된 것이다.

예) 영화 매트릭스의 세계가 바로 버클리의 세계이다.

▶ 참고자료

매트릭스Matrix

미래세계를 배경으로 인공지능 컴퓨터와 이에 대항하는 인간들 사이의 대결을 그린 미국영

화.



감독 앤디 워쇼스키, 래리 워쇼스키
제작 조엘 실버
각본 앤디 워쇼스키, 래리 워쇼스키
주연 키누 리브스, 캐리 앤 모스, 로렌스 피시번
상영시간 136분
제작사 빌리지 로드쇼 프로덕션, 실버 픽처스
배급사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
출시연월 1999년

그러나 버클리 는 현상계 저편의 실제 개념을 거부하면서도 관념들 이편의 정신과 마음의 존재는 강조했다. 버클리가 극단적인 관념론으로 갔다면 오로지 관념밖에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는 **현상 너머의 실재는 부정했으면서도 관념들 너머의 정신을 인정한다.**

버클리는 우리의 상대적이고 유한한 정신들을 넘어선 절대적이고 무한한 실재로서의 신을 강조했다. 주교였던 그는 이로서 경험론과 신앙을 결합시키게 되었다.

⇒ 만약 우리가 인간의 유한하고 상대적인 의식/마음만 인정하면 이 세계의 포괄성, 종합성,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무한한 정신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서양 신학적 사고의 특징은 현실세계를 가능한 한 빈약하게 그리는 것이었다, 그래야 나중에 신이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9강 2교시

◆ 흄, 프랑스계몽사상, 루소

데이비드 흄은 로크와 버클리를 이어서 경험주의를 극한으로 몰고 갔는데 초기의 흄은 버클리의 현상론을 이어받았다.

▶ 참고자료

흄[Hume, David, 1711.4.26~1776.8.25]

영국의 철학자. 그의 인식론(認識論)은, J.로크에서 비롯된 '내재적 인식비판'의 입장과 I. 뉴턴 자연학의 실험·관찰의 방법을 응용했다. 인간본성 및 그 근본법칙과 그것에 의존하는 여러 학문의 근거를 해명하는 일이었다. 흄스의 계약설을 비판하고 공리주의를 지향한다.



출생지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학력 : 에든버러대학교 법학부

경력 : 1752년 에든버러 변호사회 도서관 사서

1763년 프랑스 대사의 비서관

1767년 ~ 1769년 국무차관

작품 : '인성론(A Treatise of Human Nature)'

흄은 인상impression과 관념idea을 구분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실재론적인 뉘앙스를 띠기 위해서였다. 아이디어는 마음의 문제에 가깝고 인상은 내 마음의 작용 의도에 관계없이 마음 바깥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흄이 의식 바깥의 물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흄은 이러한 철학적 결론과 일상생활의 괴리 때문에 고민했다.

▲ 흄의 회의론

흄의 회의론은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의심하는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회의론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론적인 원칙에 충실한 이상 보편적 원리 같은 것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 바닷물이 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바닷물을 먹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흄은 인식의 세 가지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분명한 것은 감각적 경험들이고 두 번째가 기억이나 기록들이고 세 번째가 이성적인 추론이다. 흄은 특히 인과론에 근거한 이성적 추

론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하고 실재론적인 결론에 대해서 비판한다.

<상상작용의 역할>

홉이 말하는 imagination은 지각을 전제한다. 즉 지각을 통해 관념을 얻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미지들을 결합시키는 작용이다.

이런 그의 입장은 **연합주의/관념연합설associationism**라고 한다. 어떤 부분들을 인식한 후 그것들을 결합해서 조금 더 복잡한 것을 만들어나가는 것인데 말하자면 심리학적 원자론이다.

→ 개별적인 관념들을 결합시켜 복합관념을 얻는다는 것

⇒ 게슈탈트 심리학에 의해서 연합설이 깨지게 된다.

▲프랑스계몽사상

18세기 프랑스에서는 구체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급진적인 비판들이 전개되었다. 그 주체세력들을 **계몽사상가**라고 한다. 계몽사상가들은 아주 급진적이고 실천적이고 정치적이고 지식인으로서 박학다식한 사람들이었다.

계몽사상가들은 로크의 이성론을 이어받아서 경험주의, 더 나아가 감각주의를 전개했다. 콩디악 같은 사람은 사유실험을 한다.

→ 감각주의나 경험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유의 출발점이 주체에 있다.

여기에 비해 반대의 경향이 있는데 데카르트의 기계론을 이어받아서 유물론적 사유를 전개시켰다. 라메트리의 ‘인간기계’가 대표적이다. 엘베시우스는 이러한 유물론적 사고를 도덕이나 교육 문제에 적용한다. 극단적인 경우는 돌바르크인데 그는 뉴턴의 신학, 목적론, 영혼, 정신, 인식론 등을 모두 부정한다.

⇒ 프랑스계몽사상의 인식론과 존재론은 경험주의와 유물론의 극단적 표현이었다.

프랑스계몽사상은 사회적 역할이나 그 영향력은 컸지만 철학적으로는 조잡하고 깊이가 없었다. 이러한 프랑스계몽사상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사람이 장 자크 루소이다. 루소는 프랑스계몽사상과 독일관념론을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또한 낭만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 낭만주의는 프랑스계몽사상에 대한 반동이었다.

루소는 감정을 중시했다. 원래 인간의 감정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데 문명이 그것을 망쳐놓았다고 생각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치게 된다.

⇒ 이것은 원시적인 의미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감정으로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자는 의미이다.

자연에 대해서 루소는 기계론적 입장이나 유물론적 입장을 거부하고 **낭만주의적인 자연관을 전개**한다. 루소는 식물학자이기도 했다. 그의 사유는 독일관념론이나 괴테의 자연주의, 생기론vitalism 등으로 이어졌다.